



66
 잡념 짙어지고 오르면
 산은 빼앗듯 비워주고
 비운채로 오르면
 산은 무념을 채워주고
 99

“어떤 산이든 나에게겐 수행처”

산문박의 禪

산악인 김대환 씨

“왜 산에 오릅니까?” 산악인들이 흔히 받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김대환씨(69·한국산악회 부회장·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산은 곧 삶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주저하지 않는다.

“인간은 대우주속에 태어난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대우주는 무한한 공간과 시간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실체지만 그 속에 태어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대우주라는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운명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 한 평생을 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순간도 대우주의 자연과 절연해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산행할 때마다 절감합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산을 삶의 거울로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왔다. 그러기에 산은 때로는 신비스러운 존재로, 때로는 엄숙하게 의경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넉넉한 품을 내어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은 그냥 산악이 아니다. 이를 그대로 금수강산(錦繡江山)이다. 비록 평탄어리는 좁고 이렇다 할 자원은 없지만 우리의 강산은 너무나 아름답다. ‘인자(仁者)는 요산(樂山)하고 지자(智者)는 요수(樂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산과 같이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은 어질고 지혜롭기 그지없다. 김대환교수의 얼굴도 산의 넉넉한 품을 담아있다.

“60여년 크고 작은 산행의 과정에서 삶의 고락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선정(禪定)을 느꼈다고 할까요. 산은 마치 포근한 어머니 품속같지요. 산행과 더불어 존재하는 내 인생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을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슬산(1084m) 산록인 경북 현종에서 태어난 김교수는 ‘산을 배워 밟았

가득한 마음을 짙어지고 오르면 산은 금새 잡념들을 빼앗듯 비워주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줍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오르면 그 속에 화평과 용기를 가득 채워줍니다.”

김교수는 일단 산에 가면 세간의 모든 회노애락을 떨쳐버린다.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다. 때론 나뭇가지를 잡고, 때론 암벽을 타는 아찔한 순간순간에 마음에 응어리진 잡념들이 떨어져 나가고 비로소 정상을 맞이한다.

김교수는 칠순이 가까운 노구에도 불구하고 일단 산에 갔다면 젊은사람 못지않은 활력이 넘친다. 우선 강의가 신명난다.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화) <민족의식> <그래도 우리에게 산이있기에> 등 20여권을 어렵지 않게 집필했다. ‘산에 도전한다’는 생각보다는 대자연인 산과 소자연인인

이키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 다. 이런 비(非)등산가는 결코 산이 주는 그 무한한 고마움을 실감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김교수는 민나는 사람마다 “도심을 탈출해 산행하라”고 강조한다. 인생은 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질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도시를 떠나 집을 떠나 막상 산으로 나서면 세간의 모든 잡념들을 떨쳐버리고 잊을 수가 있다. 한마디로 산은 인간의 정신적인 귀의처이고 인식체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 하지만 무매한 것이 중생이라 했던가. 산에 올라도 안 오를듯 계속 앉아도 안 앉은듯해 산을 천연의 모습으로 남겨야 하는데 인간은 산을 송두리째 갖고 오려하고 꼭 다년간 터를 낸다.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무념무상으로 산에 오르면 해도 하산할 때의 인간은 이미 많은 것을 마음에 담고 오기 마련인 것을.

“대부분 등산객들은 산을 일러고 하지않고 그냥 즐기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알약한 향락의 생각으로 산에 오르면 산이 먼저 등을 돌리게 되지요.”

3백만여 가까운 등산인 가운데 산의 철학과 인품을 갖춘 진정한 산악인이 1~2%만 있다해도 산악문화는 올바르게 정립되었을 것이다. 가끔 수많은 등산객들에 의해 어지럽혀지고 추잡해진 등산환경에 부딪칠 때 김교수는 산악인인 것이 부끄럽다.

고희(古稀)를 앞둔 김교수는 요즘도 시간만 나면 인근의 산을 찾지만 화두가 하나 더 늘었다. ‘산에서 꼭 만나게 되는 사찰에서 요즘 사람들이 삶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다.

산과 함께 호흡하고 평생을 살아온 ‘산사람’ 김대환. 그에게 있어 산을 오르는 마음은 “구도의 길처럼 오로지 일념단심”이다.

김중근 기사

산행 60년... 세상사 떨치는 공부 아찔한 고비 넘어야 비로소 정상

“인생을 살자”는 서원을 어릴 때부터 세웠다. 이때부터 산은 그의 벗이 되었고 스승이 됐다. 산과 김대환은 불가분의 관계가 된 것이다.

국내의 산을 섭렵한 김교수는 국외의 산까지도 발을 내디뎠다. 네팔의 위 마리아, 티베트의 히말라야, 칼리만자로의 최고봉 우호르피크, 실크로드의 천산, 북극의 설산 맥킨리 등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산을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선 것이다.

“각 지역이나 국가마다 산은 있게 마련입니다. 비록 산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본성은 하나로 통합니다. 다만 오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산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자신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자”라는 것에 대한 결과다.

“산을 다니다보면 생활의 철리가 알아진다”는 김교수는 “우리 인간이 자연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너무 많다”고 강조한다. 그것들을 무의식중에 흘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자연환경을 깊이 관찰하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종교, 전통, 역사 등을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산행을 하는 것이 곧 산악인의 올바른 마음가짐이고 인격이 되는 법이다.

일요일, 휴식이나 여가를 산과 더불어 지내지 않고 ‘아이구, 피곤하다’ 하면서 낮잠이나 자고 공기탁한 당방에서나 대포집 목욕에 앉아 소주잔을 들

모든게 허우허우해 보입니다

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한가지 느낀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에 환희심을 맛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모든 게 허우허우해 느껴집니다. 생명도 헛되게 느껴지고 일상생활도 덧없게 보이는데 그것 역시 마음의 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최봉현·대구 수성구 만촌동)

답 마음을 비웠다는 생각도 놓고 환희심이나 덧없다는 생각도 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스승이 계시다면 점점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은 그 덧없다는 생각도 내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즐겁다는 생각도 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생각을 내은 자리에 되놓아라,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그 자리요 들릴 않게 하는 것도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놓으세요. 확 바뀔 겁니다. 그러나 환희심이다 덧없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 역시 집착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때는 종일 일을 하고도 두, 세시간

가에 어떤 것은 특별한 값어치가 있고 어떤 것은 하찮다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길 하더군요. 마음공부를 하다보니까 논문을 쓰는데 전보다 훨씬 더 잘 써지더라고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지요. 주인공 자리고, 이름없는 주인공 자리에서 전체가 다 나오고 거기로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학문을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참선입니다. 참선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된다고 전에도 말했지요. 열심히 정진해서 내가 붙지 않는 차원에 이르러되면 들고 나게 다 거기, 주인공 자리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지 따로 참선이 있어야 할 까닭이 없게 되지요. 그렇지만 거기 내가 달라 붙어서 좋으니 나쁘니 하게 되면 물어보신 그 둘은 다르게 봐주세요.

가령 이쪽이다 저쪽이다 할 때에 그 이쪽 저쪽이 다 상대적인 기준인데다가 사람이 다 다 다르게 됩니다. 다시말해 동쪽과 서쪽에 마주 선 사람이 그 중간을 바라볼 때에 동쪽에 선 사람에게 중간은 서쪽이 되고 동쪽에 선 사람에게 중간은 서쪽이 되고 서쪽에 선 사람에게서는 중간이 동쪽이 됩니다.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수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사(한양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해 줍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밖에 잠이 안올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때 사람이 내가 두세시간밖에 못잠는데 피곤해서 어쩌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말로 육신이 피로해서 애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두세 시간밖에 못잠게 한 것도 그 자리의 일이지요. 그런 걱정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다 놓아버리란단 말이지 사람은 피로해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밤에 제대로 못자서 몸이 쉼부드러하는 생각을 종일토록 합니다. 나중엔 아예 불면증이 시달립니다. 사서 고생이란 말입니다. 그러지말고 졸리면 자게떨어지 하고 딱 내려놓으면 무엇이 걱정이었습니까? 환희심이다 덧없다 하는 생각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걸 다르나 같으나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따라 서면 다르지 않지만 말입니다.

“나이란 도리”를 지켜가려면...

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아닌 도리를 맡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도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까? 또 그 경지에 머무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머무르지 않으려 하지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것도 생각인데 그때는 어떻게 한 법을 내달려주세요. (이선자·부천시 원미구 상동)

답 지켜나가는 무얼 지켜나갑니까? 밥 잘먹고 소화 잘시키고 톱 잘누고 잠 잘 자면 그냥 여여하지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 마음공부하는 데는 닦는대로 놓고가라 했는데 내 경지가 어떻게든 이만하면 됐다 하니 아직 부족하다하니는 군더더기가 거기 왜 붙습니까? 조사님 말씀에 부처가 오면 부처를 배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쳐죽이라 했다는 말도 못들으셨습니까? 이것 저 따질것 없이 닦는대로 놓으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한 소식 얻었다해서 거기에 주저했거나 이만하면 되었고 하고 고개를 쳐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불법수행과 같나

문 스님들께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불법공부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학문분야나 산업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그 값어치를 따지면 공덕에 가서는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정배·충남 아산시 실목동)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는 값어치로 따져 갈다 다르다 가 아니라 일체 현상은 모두 실다운 상이 없으면서 실 사이없이 돌고 도니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체만유는 활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나고 드는데 거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들이께서 항상 지니면서 수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 국판권 256p·고급비닐커버 ▶ 정가 2,000원
- 증보판: 국판권 352p·고급비닐커버 ▶ 정가 2,500원

※ 법포시 하일 사람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장경 석일화판저

- 크기/국판권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광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영국동로터리)

직 원 모 집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복지관을 신축하여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펴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보육사업과 노인복지사업에 헌신할 가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1) 인덕어린이집 종사자 모집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근무지
시설장교사	0명	시설장자격자	진관외동 산38-4
교사	0명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소지자	이이상동
취사부	0명		

2) 인덕노인복지회관 종사자 모집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근무지
시설장	0명		진관외동 산38-4
사회복지사	0명	해당자격증 소지자	
축약의사	0명	해당자격증 소지자	
간호조무사	0명	해당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0명	해당자격증소지자	
취사부	0명		
관리인	0명		
사무원	0명	사무처리능력소지자	

2. 제출서류

1)자필이력서 1통 (전화번호, 응시직종을 유추상당 기재요)
 2)자기소개서 (1000자이내) 3)자격증사본 1통 (자격증소지자)
 4)주민등록등본 1통 5)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에 한함)

3. 전형방법

1)1차 서류전형 2)2차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4. 제출기간 및 접수처

1)제출기간 : 1997년 2월 5일 까지
 2)접수처 : 삼천사 사무실(은평구 진관외동 산 127-1)

5.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함
 3)문의처 삼천사 02)353-3004 02)359-7766
 법인사무국 02)385-8181(대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대한불교 조계종 삼천사 주지 서성운(병진)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사용법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편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갑상선성고통병이다.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